



## “정부 상황인식 안일하다”

### 자승 스님, 김황식 총리에 개신교 행태 우려 전달 시민사회도 “방관했다”... 토론제안에 개신교 침묵

#### 개신교계 조직적 불교혐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신교계의 불교 혐하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을 매우 강도높게 비판했다. 10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취임인사를 위해 총무원을 예방한 자리에서였다.

자승 스님은 김 총리에게 “최근 개신교계의 불교 혐하가 상식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개신교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배석했던 기획실장 원담 스님도 개신교계 반대로 무산된 대구 팔공산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과 KTX 울산역명에 통도사역을 병기하기로

했다가 취소된 것을 예로 들며 “정부의 일방적 번복을 보면 정부와 지자체가 개신교계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승 스님과 원담 스님의 지적에 대해 김 총리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를 수행한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대구기독교총연합회에 중무실장을 보내 정부의 뜻대로 진행되는 상황을 일부 과격 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설명해 면담 분위기가 일순간 경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승 스님은 박 차관의 답변에 “종교정책을 담당하는 문화부가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일부 과격 한 사람들의 소행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매우 위험하다”며 “사회혼란을 우려해 불교계가 참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신교의 찬양인도자학교 관계자들이 서울 봉은사와 대구 동화사에서 ‘땅밟기’를 한 것에 대해 개신교계 내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개신교계의 일방적인 불교혐하 행위가 국민들에게 종교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막고, 이번 사태를 호지부지 넘기려는 정부 내 개신교인사들의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최근 개신교의 행태에 크게 우려하면서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불교계의 대응이 미흡했다. 작은 문제라도 불교계가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

도 종교갈등을 방관했다. 종교갈등이 심화될 때는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하고, 법제화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류성민 한국종교학회 회장은 “이번 사태는 자신의 종교가 중요하듯 다른 종교도 중요하다는 상식선에 접근해야 한다”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며 “이웃종교를 알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노력도 부족했다”고 종교다원주의의 확산을 촉구했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10월 27일 ‘봉은사 땅밟기’를 주도한 최지호 목사 등 관계자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종교이해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개신교계에 제안했다. 그러나 개신교계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 연탄이 주는 열기 이상의 나눔

### 조계종 복지재단·한화S&C,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

느닷없는 영하의 한파가 물러온 10월 27일. 종로구 부암동 뒷골에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연탄 1800장을 들고 찾았다. 조계종복지재단(대표 대외)과 한화S&C(대표 진화근)가 급히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연탄 나눔 봉사를 하기 위해 모였다.

부암동 뒷골은 지금도 마을 주민 전부가 농사를 짓고 있다. 각종 규제로 옛 모습 그대로인 이곳은 시골 동네의 모습이였다. 20가구가 채 되지 않는 집들은 함석판으로 지붕을 잇대고 돌을 쌓아 담을 만들어 놓고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추웠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임직원과 자원봉사단 30명, 주황색 조끼를 입은 한화S&C 임직원 40명이 지고재그로 줄을 엮었다. 연탄 나르기도 다양한 방법과 노후가 필요했다. 전문가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앞치

마를 두르고 3.6kg에 달하는 22구공탄을 척척 전달했다. 이날 연탄은 6가구에 각 300장씩 전달됐다. 어떤 집은 릴레이식으로 전달하고 더 먼 곳은 두 장씩 직접 안고 찾아가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 옛날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꽤 무겁네. 예전에는 어찌 살았을까?”

문득 과거를 추억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 “오- 김 상무 아주 잘하는데”라며 진화근 대표는 직원을 격려했다.

이날 자비의 연탄나눔 행사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외 스님과 진화근 대표이사, 탤런트 이세창 씨도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연탄 외에도 쌀 20kg 2포대와 김치 10kg, 연탄난로 설치 및 연통 수리 등도 함께 진행됐다.

대외 스님은 “월 1만원의 후원자

5명이 모이면 다가오는 추위에 시름하는 이웃 1가정에게 따뜻한 겨울을 전해줄 수 있다”며 자비나눔 동참을 당부했다.

이세창 씨는 “연탄을 받는 분들은 연탄이 생겨서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고, 봉사자들의 웃음에 오히려 내가 따뜻해져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경자(78)어르신은 봉사자들이 연탄을 옮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허리가 아픈 어르신은 “연탄난로를 켜지 않으면 집안에 있는 수도도 얼 정도로 추운 곳이라 겨울이면 늘 걱정을 한다. 몸이 좋지 않아 어디 갈 수도 없는 처인데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며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한 불씨 전달 연탄 나눔 행사는 부암동 뒷골 외에도 종로지역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글=이상연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우리 마음속에 불성이 있음은 일깨워주는 생활 속의 마음공부 이야기들을 노랫말로 만들어 주세요

노래하며 배우는 부처님 마음

【음 모 야】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 쉽게 쉽고 밝은 노랫말로 순수 창작 작품이어야 합니다. ●출품작은 1곡 이상이어야 하며, 다수의 작품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응모기간 및 시상】 접수 마감 : 2010년 11월 31일까지 ● 수상작 발표 : 12월 19일 (본원 정기법회에서 시상)

【장 격 내 렵】 대 상 (1명) : 상금 100만원 ● 최우수상 (2명) : 상금 50만원 ● 우수 상 (3명) : 상금 30만원 ● 장 격 상 (10명) : 상금 10만원

\* 응모방법과 참고사항은 [www.hanmaum.org](http://www.hanmaum.org) 에서 확인

## 태고보우 국사 탄신다례 봉행

### 태고종 “화합정신으로 종풍 진작”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10월 28일 북한산 태고사 부도전에서 태고종 태고보우 스님의 제709회 탄신 기념 다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원로의원 원법 스님, 중앙교육원장 보경 스님, 순천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교무부장 법경 스님, 재무부장 혜산 스님, 문서부장 법운 스님, 총무위원 능해 스님, 중앙종회의원 영철 스님, 청암문도회 법상·법경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법어에서

“종조 태고보우 국사는 종파들의 난립과 분쟁을 지양하고자 일불승을 제창해 원융화합을 이뤄냈다”며 “700만 태고종도 모두는 종조의 원용사상과 화합정신을 높이 고양하고, 종풍을 진작하는데 큰 원력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태고종은 종풍선양과 더불어 원용정신으로 한국불교사에 통불교 전통을 확립한 태고보우 스님의 뜻을 기리며 스님의 부도가 있는 북한산 태고사에서 매년 다례법회를 봉행해 왔다.

조동섭 기자

- 14 15 선지식 원용 스님
-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공력을 들이면 들인 만큼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자식을 위한 기도도 좋은 일이지만, 마음을 크게 쓰는 것이 부처님 법이죠...불교는 스스로 체험하지 않으면 깊은 맛을 알 수 없어요.”
- 7 돈점세쟁 다시 불 지피었다
- 12 새 연재 ‘한지유의 순례’
- 18 책세상 단순한 삶의 방법
- 18 달마야 놀자! 범주 스님

## 종단협, 북한 수해 복구 쌀 30톤 전달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이 10월 27일 북한 수해피해 복구물품 쌀 30톤을 전달했다.

종단협은 서울 경지동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쌀 30톤(5500만원 상당) 상차식을 봉행하고, 남북 출입국 관리를 지나 개성 공단에서 조선불교도연맹에 쌀을 전달했

다. 쌀 전달에는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 사무국장 강하 스님, 이상규 사무차장,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박재산 기획홍보계장 등이 함께했다.

상차식에는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진

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상하 스님, 미륵종 총무부장 도연 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무원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 총무원 사서실장 경우 스님, 진각종 문화사회부장 덕정 정사 등이 참석했다.

이상연 기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C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형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전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 전기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신희동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